

# 개인의 지역소속감이 사회 소수자 포용성에 미치는 영향\*

- 사회참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act of an individual's Sense of Local Belonging  
on the Social Inclusion Toward Social Minorities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

박 경 화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 - 주저자)  
이 승 혁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교신저자)

## *Abstract*

Kyeong-hwa Pak / David Le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an individual's local identity and the inclusion toward social minorities, explor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Applying Social Identity theory,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n whether local identity expresses as a common in-group identity. Using data set from the 'Social integration survey' on 2023, this study shows the following results; (1) local identity(sense of belonging) and social inclusion toward social minorities shows a negative relation; (2) local participation out of bonding participation has positive moderating effect on social inclusiveness, while alumni association has non-significant effect; (3) bridging participation has positive moderating effect on social minority.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attributes of social participation as well as individual's sense of belonging toward local community, in order to enhance social inclusion for social minority groups.

Keywords: Social inclusion, minority, sense of local belonging, social identity, social capital

\* 본 논문은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024년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귀중한 심사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I. 서론

국내 사회 구성원들이 급속하게 다양해지면서 사회 구성원의 이질성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외국인 이주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에 따른 인종적 다양성이 증가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 성적 지향에 기반한 성 소수자 논의 또한 정책 의제화되면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이질성 수준을 더욱 높이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의 외국인 인력 도입 계획 발표<sup>1)</sup> 등으로 인해 이러한 양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사회 포용성의 논의는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바, 사회 내 이질적 집단에 대한 배타적 태도와 차별 및 혐오 등 잠재적인 집단 간 갈등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안혁근 외, 2010).

이는 이미 국내 사회에서 다양한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사회 소수자 집단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다수 사회 구성원의 경제·사회적 이익에 반하는 존재라는 부정적 편견에 노출되어 있다(조아라 외, 2023). 또한 사회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 및 혐오에서 나아가 관련 범죄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sup>2)</sup> 사회의 이질적 집단 간 높은 잠재적 갈등 수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사회 및 경제의 통합적인 발전을 저해하는바,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 포용성은 주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한편, 지역사회 고령화, 지방 도시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지방 소멸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역주민의 소속감 강화 및 지역사회 참여 증진 등 자치권 강화를 통한 지방자율성 및 지방 민주주의 강화도 주요한 화두로 강조되고 있다(하혜수, 2017). 전통적으로 지역소속감 강화는 지역주민 간의 교류 활성화로 인한 공동체 형성 및 지역 애착심 강화로 인한 지역사회의 관계성 회복 등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재경, 2015). 하지만, 지역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지역소속감 강화에 기반한 지방 활성화 정책은 오히려 외부 집단 혹은 소수자 집단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을 포용하는 방향과는 반대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지역소속감 강조가 지역사회에 소속된 사회 소수자 집단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발현될 때는 지역소속감 강화에 기반한 지방 자치 정책은 오히려 국내 사회의 집단 간 포용성을 저해시키고 또 다른 사회·정책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개인의 지역소속감이 사회 포용성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기 위한 정책적 요인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사회 포용성의 강화를 위한 정책적 요인은 다차원적으로 논의되는데, 특히 사회 포용성은 지역사회의 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만족을 의미하는 커뮤니티 웰빙의 구성요소로서 다뤄지기 때문에 사회 포용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요인들은 자본(capital)의 개념을 통해 설명된다. 지역주민의 신뢰 및 참여 수준을 나타내는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이 지역 내 교육·복지 서비스 수준 등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3년 11월 27일). 내년 외국인력(E-9) 16만 5천 명 도입.

2) 최범규, “그저 악명 사냥꾼일뿐, 불체자 찾아 폭행·갈취 ‘자국민보호연대’ 일당 들미”, 노컷뉴스, 2024. 4. 22., <https://www.nocutnews.co.kr/news/6133610>

을 나타내는 인본적 자본(human capital)과 지방 재정 및 일자리 수준을 나타내는 경제 자본(economics capital) 등에 이어,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다뤄지고 있다(최영출, 2019). 다만 사회 자본의 경우 그 유형에 따라 사회 포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Putnam 1995) 유형에 따른 영향력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유형별 논의는 사회 자본의 주요한 구성요소이자 측정지표로 활용되는 사회 참여의 수준으로 구체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Guillen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지역사회 소속감이 사회 소수자 집단 포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현재 국내 사회에서 지역소속감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소속감 강화가 사회 포용성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적 요인으로서 사회 참여의 조절 효과를 사회 자본의 유형별 논의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지역소속감 강화가 지역사회 활성화 및 사회 포용성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논의

### 1. 사회 소수자 집단에 대한 포용성

사회 포용성(social inclusion)이란 타인을 본인과 동등한 가치로 받아들임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나와 동등한 존재로 대우하는 개인 차원의 포용성 개념이 국가·사회 차원으로 확대된 개념이다(김윤태, 2019). 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가치를 부여받고 사회에서 부여하는 다양한 기회와 자원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 포용성의 증진은 공적 의사결정의 품질 제고, 물적·인적 자원의 활용도 제고, 사회 구성의 다양성 존중 및 포용성 증진의 문화로 확산 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발전 및 경제 성장의 주요한 측면으로 다뤄지고 있다(Gidley, J. et al., 2010; Harbermas, 1998; 유란희·이태형, 2020 재인용).

특히 사회 포용성은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되는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고 정치·경제·사회적 자원 및 기회로부터 배제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인 '사회적 배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다뤄진다. 사회 포용성과 사회적 배제가 발현되는 양상은 구조적으로 역전되어 나타난다(Van Wart et al., 2023). 따라서 최근에는 사회 소수자 집단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인식을 기반으로 사회 포용성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Rawal, 2008). 예를 들어, 빈곤계층 및 장애인·결손가정 등 사회 배제 집단에 대한 통합적인 포용성을 다루며 그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거나(유란희·이태형, 2020; 권연화·최열, 2021) 노인(박능후·최민정, 2014), 북한이탈주민(황정미, 2016), 외국인(Cheong et al., 2007; 윤인진, 2016; 강서윤·전희정, 2022; Lee et al., 2024) 등 특정 사회 배제 집단에 대한 사람들

의 포용성 인식 실태 및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그 예이다.

포용성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사회 소수자 집단은 사회의 다수, 즉 주류집단과 대비되는 집단을 의미하며, 주로 인종·민족·성별 등 특정 범주에 속한다는 이유로 차별당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한 모든 대상을 포함하는 '사회적 약자'의 개념과는 구분되며, 빈곤계층·장애인 등 전통적인 사회적 약자 개념과 비교했을 때,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사회적인 영향력이 조직적으로 작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Graffin, F. et al, 2005; 원숙연, 2017; 윤인진·송영호, 2018). 사회 포용성의 개념은 주류 집단 및 비주류 집단의 가치가 모두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하며, 서로 다른 가치를 폄하하거나 억압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V. Wart et al., 20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 소수자 집단 등 비주류집단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상태'를 사회 포용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한편 소수자 집단별로 사회 포용성의 수준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이주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집단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세 집단은 빈곤계층·장애인·여성 등 기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집단과는 달리 한국 사회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유입되거나 새로이 등장한 집단(안혁근 외, 2010; 허거훈·정혜진, 2020; 조아라 외, 2023)이라는 특성을 보이며, 이로 인해 사회 소속감 형성에 상대적으로 배제 받아온 특징을 갖고 있다(정정희, 2024). 또한 이들은 기존의 지배적인 가치 및 규범과 대립적인 성격을 강하게 보인다는 특징을 갖는다. 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한국의 단일민족·문화 가치관과 대립되며,<sup>3)</sup> 성소수자의 경우 전통적으로 지배적인 이성애 규범과 대립하여 최소한의 도덕적 규범인 법을 위반한 전과자와 유사한 속성을 가진 집단으로서 부정적으로 인식된다(정현일, 2023).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국내 사회에서의 위 사회 소수자 집단에 대한 포용성 수준은 낮다. 사회적 포용의 수준은 기본권 보장, 교육 기회 확대 등 공식적인 수단을 통해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개별 집단들의 공식적·정치적 권한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적인 집단에 대한 포용성 논의에 더욱 적합하다. 한편 집단 또는 개인 사이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사회 포용의 수준은 일반 국민의 인식과 태도, 즉 인지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으로 살펴볼 수 있다.

## 2. 사회 정체성 이론: 사회 포용성과 지역소속감의 관계

사회 구성원은 개별적으로 사회적 범주에 따라 일정한 소속 집단을 형성하게 되고 개별 소속 집단으로서 고유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 특히, 정체성을 갖는 과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 간

3)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 국적자와 무국적자(「국적법」 제3조)를 의미하지만, 한국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중국국적동포, 외국인근로자 등 다양한 민족적 배경을 갖고 있거나, 동일한 민족적 기원을 갖지만 배경이 다른 집단도 모두 포함될 수 있다.(Lee et al., 2024)

의 관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사회로부터 받는 영향력과 집단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으로 가정한다(Hogg, 2016).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회 소수자 집단은 개인은 소속 집단으로부터 사회 정체성(Social Identity)을 형성하고, 이는 본인이 속한 내집단(in-group)과 다른 집단인 외집단(out-group)의 구분 근거로서 작용한다(Tajfel & Turner, 1986). 이러한 관점에서 이주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집단과 같은 집단도 소속된 사회적 범주에 따라 다른 집단과 구분되는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며, 이를 통해서 내·외집단으로 형성된 다른 집단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고, 해당 집단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사회 구성원의 정체성의 다른 유형으로는 영토적 소속 기반의 개인적 태도인 '지역소속감'이 제시될 수 있다. 이는 특정 장소에 소속됨으로써 형성되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정의되며, 사회·문화·법적 요인 등과 결합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이를 통해서 개인은 스스로 지역사회의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소속감 등 다양한 심리적 태도를 갖게 되며, 지역소속감은 이러한 심리적 태도를 대표하는 개념으로서 '지역정체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다뤄진다(Antonsich, 2010; Kitchen, et al., 2012; 홍봉선 외, 2012).

사회 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 간 교류로 인해서 형성되는 유형의 정체성과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형성되는 정체성 등 다양한 사회 정체성을 구성하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사회 정체성은 소속 집단 및 지역으로 형성되는 내·외집단의 관계 및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스스로 존재근거와 각 집단에 대한 인식·태도를 형성한다. 또한 외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내집단과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형성하여 내집단의 결속력(cohesion)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평가(편견)도 강화한다(Brewer, 1991; Khile et al., 2021). 즉, 한 개인은 다양한 사회적 범주에 속하여 둘 이상의 사회 정체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 정체성은 어떤 방향으로 발현되는지가 사회 포용성의 측면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개인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내집단인 같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여 사회 포용성 수준이 높아지거나, 다수 집단과 구분되는 외집단인 사회 소수자 집단으로 인식하여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극단적으로는 지역사회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Van Wart et al., 2023).

한편 공통 내집단 정체성 모델(Common In-group Identity Model)에 따르면, 한 개인은 둘 이상의 사회 정체성을 가질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해 있더라도 공통으로 속하는 사회적 범주에 기반한 재범주화를 통해, 공통 내집단 정체성을 갖는다면 다른 집단 간의 편견 및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Dovidio et al., 2007). 즉, 사회 소수자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내·외집단으로서의 개별적인 정체성이, 같은 지역소속감에 기반한 하나의 정체성으로 통합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다만 사회 소수자 논의에 따르면, 다수 집단은 그들의 지배적인 가치를 강화하는 단일 집단 정체성(one-group identity)을 선호하는 반면, 소수 집단은 그들의 고유한 속성을 존중받는 동시에 지배적인 단일 집단 정체성과도 연결될 수 있는 이중 정체성(dual identity)을 선호한다(Stets and Serpe, 2013). 특히 서

로 다른 사회적 범주에 기반한 정체성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이중 정체성의 관점에서, 특정 사회에서 다양한 정체성이 중첩되는 수준이 높을수록 타자에 대한 포용이 높게 나타난다(González and Brown 2003; 박상희, 2021).

따라서 다수 집단의 단일 집단 정체성이 강하게 작동하거나, 다양한 소수자 집단의 정체성이 이중 정체성으로 충분히 발현되기 어려운 사회에서는 특정 사회 정체성이 공통 내집단 정체성으로서 소수자들을 포용하지 않을 수 있다(V Tselios et al., 2015). 즉, 지역소속감은 사회 소수자를 내집단으로 포용하는 공통 내집단 정체성으로 발현되지 않아, 사회 포용성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H1: 개인의 지역소속감이 높을수록 사회 포용성 수준을 낮출 것이다.

나아가 개인의 거주지역 기반의 정체성인 지역소속감을 사회 소수자 집단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발현시키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고 다른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사회 포용성의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다뤄지는 ‘사회참여’에 주목하고자 한다(이재철, 2017; 이인원·박현욱, 2020).

### 3. 사회 자본의 유형별 논의에 따른 사회참여의 조절 효과

사회 참여는 개인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 및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사회 포용성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요인으로 다뤄진다(Guillen et al., 2011; 김혜연, 2011). 개인은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 접촉하고 교류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타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발적 결사체 등을 통한 조직적인 참여는 개인이 포용을 학습 및 실천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Allport, 1953; 조아라 외, 2023 재인용; Cote and Erickson, 2009). 특히 자발적 결사체 참여는 집단 내 상호협력과 다른 집단과의 직간접적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개인이 다른 집단과의 차이가 반드시 비용 또는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학습하게 한다(Lee et al., 2024). 또한 개인들의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기반한 참여는 지역에 대한 시공간적 정보를 공유하여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Leuenberger & Wakin, 2007).

다만 사회 참여는 그 유형에 따라 사회 포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의 유형 논의와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사회 자본은 문화적 특성에 기반하여 형성되는 사회 공동체의 자산이자, 개인들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는 자원을 의미한다(Portes, 1998; Putnam, 1995). Putnam(1995)의 연구에서 자발적 결사체 참여가 사회 자본의 구성요소로 제시된 이후, 참여는 다양한 연구에서 사회자본의 주요한 구성요소이자 측정지표로 활용되고 있다(Paxton, 2002; Guillen et al., 2011; 최석현·왕혜숙, 2019). 특성에 따라 결속형(bonding), 교량형

(bridging), 연결형(linking)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각 유형은 서로 상호보완적인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다.

먼저 결속형(bonding)의 경우, 주로 동질적인 구성원 간 결속을 강화하는 유대감, 신뢰 등 긍정적인 사회참여의 영향이 집단 내부 지향적인 특성을 보여 기본적으로 외부 집단에 대해서는 배제적인 양상으로 발현된다(Burt, 2000; 허거훈·정혜진, 2020). 교량형(bridging)의 경우, 다양한 구성원들을 포괄하는 연대감에서 기인하여, 이질적인 개인 또는 집단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사회적 관계의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을 연결하는 개방적인 양상으로 발현된다(Woolcock, 2001; Paxton 2002; 강서윤·전희정, 2022). 연결형(linking)의 경우, 국가-기관, 국가-시민사회 등 공식적인 권력을 기반으로 한 수직 관계를 전제하는바, 시민들 간의 수평 관계를 다루는 본 연구의 논의에서는 제외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 자본의 유형 논의에 따라 참여가 사회 포용성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 동질적인 집단 내의 강한 결속력을 기반으로 하는 결속형 참여의 경우, 사회 소수 집단에 대한 포용성 정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이질적인 구성원 간의 개방적인 교류를 기반으로 하는 교량형 참여의 경우, 사회 소수 집단에 대한 포용성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연구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H2-1: 결속형 참여는 사회 포용성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H2-2: 교량형 참여는 사회 포용성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앞서 사회 정체성 이론을 바탕으로 국내 사회에서 지역소속감과 사회 포용성 수준의 부정적인 관계를 예측하며, 개인의 지역소속감을 사회 소수자 집단을 배제하지 않는 정체성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사회참여는 사회 포용성의 주요한 영향요인으로서, 참여의 유형에 따른 사회 포용성에 대한 영향력을 다뤘었다(Cote&Erickson, 2009; 김진·강혜진, 2019).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논의에서 나아가 개인의 지역소속감과 사회 포용성의 부정적 관계를 완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사회참여의 실증적인 가능성을 확인할 것이다. 이때 지역소속감의 개념은 단독적으로는 개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추동하지 않기 때문에(양덕순·강영순, 2005; 최문형·정문기, 2015), 지역소속감과 사회참여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아닌 사회참여의 조절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앞선 사회참여의 유형별 논의에 따라 지역소속감과 사회 포용성의 부정적인 관계를 결속형은 강화, 교량형은 완화할 것으로 아래와 같이 예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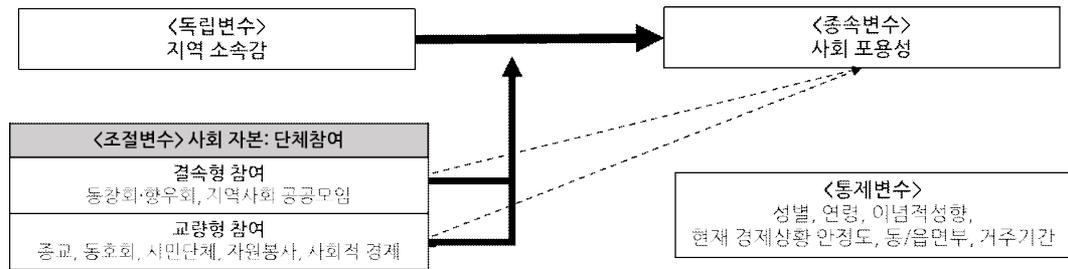
H3-1: 결속형 참여는 지역소속감과 사회 포용성의 부정적 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H3-2: 교량형 참여는 지역소속감과 사회 포용성의 부정적 관계를 완화할 것이다.

### Ⅲ. 연구설계

#### 1. 연구 모형 및 데이터

지역소속감과 사회 포용성의 관계 및 그에 대한 참여의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의 2023년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의 통합수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및 태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는 국가 승인통계이다. 해당 데이터의 2023년도 설문 대상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포는 <표 1>과 같다.

총설문 응답 인원은 8,221명이며, 남성 4,070명(49.5%), 여성 4,151명(50.5%)으로 거의 동등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이별로는 60대 이상이 2,619명(31.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외 연령대는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소득의 경우, 과반수가 400만 원 이상의 가구소득 수준을 보였으며, 가구소득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경우에는 5점(보통)이 2,854명(34.7%), 6점이 1,765명(21.5%)으로 보통 이상으로 안정적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거주지역의 경우, 6,708명(80.9%)이 도시(동부)에, 1,586명(19.1%)이 농어촌(읍면부)지역에 거주하여 도시지역 거주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이념적 성향은 중도 성향이 과반수(3,842명, 46.7%)에 가깝게 나타났고 보수 및 진보 성향의 비중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포용성은 개인의 정치(이념)적 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 검토 내용에 따라 다른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원숙연, 2017; 이인원·박현욱, 2020).

〈표 1〉 데이터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변수	항목	빈도(%)	변수	항목	빈도(%)
성별	남	4,070(49.5)	본인의 현재 경제 상황 안정 정도	0 (전혀 안정적이지 않음)	35(0.4)
	여	4,151(50.5)		1	62(0.8)
거주지역	도시(동부)	6,708(80.9)		2	223(2.7)
	농어촌(읍면부)	1,586(19.1)		3	638(7.8)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33(5.3)		4	1,079(13.1)
	100~200만 원 미만	521(6.3)		5(보통)	2,854(34.7)
	200~300만 원 미만	959(11.7)		6	1,765(21.5)
	300~400만 원 미만	1,383(16.8)		7	1,184(14.4)
	400~500만 원 미만	1,356(16.5)		8	354(4.3)
	500~600만 원 미만	1,573(19.1)		9	23(0.3)
	600만 원 이상	1,996(24.3)	10(매우 안정적)	5(0.1)	
연령	19~29세	1,255(15.3)	이념적 성향	매우 보수적	391(4.8)
	30대	1,235(15.0)		다소 보수적	2,064(25.1)
	40대	1,485(18.1)		중도적	3,842(46.7)
	50대	1,628(19.8)		다소 진보적	1,728(21.0)
	60대 이상	2,619(31.9)		매우 진보적	196(2.4)
전체					8,221(100)

## 2. 변수 설정

〈표 2〉 변수별 설문 문항

구분		내용	척도
종속 변수	사회 포용성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3)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5) 성적 소수자, (6) 북한이탈주민	1~5
독립 변수	지역소속감	나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1) 시·도	1~4
조절 변수	참여	결속형 귀하는 다음 사회단체에 대하여 활동 정도가 어떻게 되십니까? (6) 지역사회 공공모임, (7) 동창회·향우회	1~5
		교량형 (3) 종교단체, (4) 동호회, (5) 시민단체 (8) 자원봉사·기부단체 (9) 사회적 경제조직	
통제 변수	인구통계학적 요인	성별, 연령, 현재 경제상황 안정도, 정치이념적 성향, 거주지역(동·읍 면부), 현 거주지역 거주기간	

### 1) 종속 변수: 사회 포용성

본 연구는 종속 변수로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 소수자 집단에

대한 포용성 수준을 제시한다. 각 집단에 대한 개인의 포용성 인식 정도에 대한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해당 집단을 어느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묻는 항목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의 1에서부터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의 5까지의 보가더스(Bogardus) 척도로 측정되었다. 변수별 설문 문항은 <표 2>에, 기초통계는 <표 3>에 기술되어 있다.

## 2)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 지역소속감과 참여

독립 변수인 지역소속감의 경우, 개인이 거주하는 시·도에 대한 소속감을 묻는 단일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부터 '매우 그렇다'의 4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에서는 지역소속감을 지역정체성과 같은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sup>4)</sup> 또한 우리나라에서 지역정체성은 출신지보다 거주지에 근거하여 나타나며, 특히 내집단 편향 및 외집단 배제의 양상으로 발현되는 지역정체성의 경우, 서울, 대구·경북, 전라, 제주 등 상위의 지역 단위인 시·도 수준에서 나타나는 기존 연구에 기반하여 지역소속감 측정 변수를 시·도로 한정하였다(김기동·이재묵, 2022).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서도 시·도에 대한 소속감(평균 2.88점)이 다른 지역 범위(시·군·구 2.84점, 읍·면·동 2.82점)의 소속감보다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다.

조절 변수인 참여는 개인의 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소속된 적이 없다'의 1부터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의 5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다만 각 사회단체 활동 정도의 평균은 1~2점대 내외로 전체적인 단체참여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각 문항은 평균보다 낮은 경우는 0, 평균보다 높은 경우는 1로 코딩하여 집단 간 비교가 가능하게 활용하였다.

한편 사회 자본의 유형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따른 결속형 및 교량형 단체에 대한 구분이 다양한 바, 선행연구에서는 구성원의 동질성 여부 및 다양한 이해관계 포함 여부(Putnam, 2000; 김진·강혜진 재인용), 관계의 특성(이현우 외, 2011), 단체의 목적(이재철, 2017)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검토 결과에 따라, 결속형 참여는 동창회 또는 향우회, 지역사회 공공모임(반상회, 주민조직 등)에의 소속·활동 수준에 대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교량형 참여의 경우, 종교단체, 동호회, 시민단체, 자원봉사·기부단체, 사회적 경제조직에의 소속·활동 수준에 대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유형별 참여 문항의 요인 및 신뢰도 분석 결과에 따라 세 가지 모형을 구성하였다.

## 3) 통제 변수

통제 변수는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사회 포용성에 미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 소득수준, 정치 이념적 성향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을 활용하

<sup>4)</sup> 지역정체성은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지역에 대해 구성원으로 갖는 소속감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며,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의미한다(사회통합실태조사, 2023).

였다. 특히 소득수준의 경우, 개인의 소득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측정한 현재 본인 가구의 경제 상황 안정도에 관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또한 독립 변수로 활용한 지역소속감과 연관된 요인들을 고려하여, 개인의 거주지역(동·읍면부)과 현 거주지역에의 거주기간에 대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표 3〉 변수별 기술통계 및 요인·신뢰도 분석 결과

구분	변수		N	평균	표준 편차	min	max	요인 설명	신뢰도
종속 변수	사회 포용성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8,221	2.85	0.90	1	5	0.84	0.68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 성적 소수자		1.74	0.90	1	5	0.76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 북한이탈주민		2.58	0.98	1	5	0.74	
독립 변수	지역 소속감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 시·도		2.88	0.71	1	4	-	-
조절 변수 (사회참여)	결속형 참여	사회단체 활동 정도: 동창회·향우회	8,221	2.82	1.52	1	5	-	-
		사회단체 활동 정도: 지역사회 공공모임		1.56	1.06	1	5	-	-
	교량형 참여	사회단체 활동 정도: 종교단체		1.8	1.33	1	5	0.53	0.66
		사회단체 활동 정도: 동호회		2.13	1.41	1	5	0.51	
		사회단체 활동 정도: 시민단체		1.22	0.71	1	5	0.81	
		사회단체 활동 정도: 자원봉사·기부단체		1.41	0.95	1	5	0.78	
		사회단체 활동 정도: 사회적 경제조직		1.24	0.74	1	5	0.78	

### 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결과 분석을 위해 SPSS v.28.0을 활용하였다. 우선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토대로 선정한 설문 문항들이 이를 측정하는 각 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FA; 베리맥스 방식), 신뢰도 분석(Cronbach's  $\alpha$ )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변수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등 파악을 위해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한 이후, 가설 검증을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 IV.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조절 변수인 참여의 유형에 따라 세 가지 모형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모형 모두 지역소속감과 사회 포용성 수준의 관계를 확인하였고 조절 변수에 따라 세분화하였다. 모형 I 및 모형 II은 조절 변수로서 결속형 참여인 동창회·향우회 또는 지역사회 참여의 영향력을 각각 확인하였으며, 모형 III은 교량형 참여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세 가지 모형별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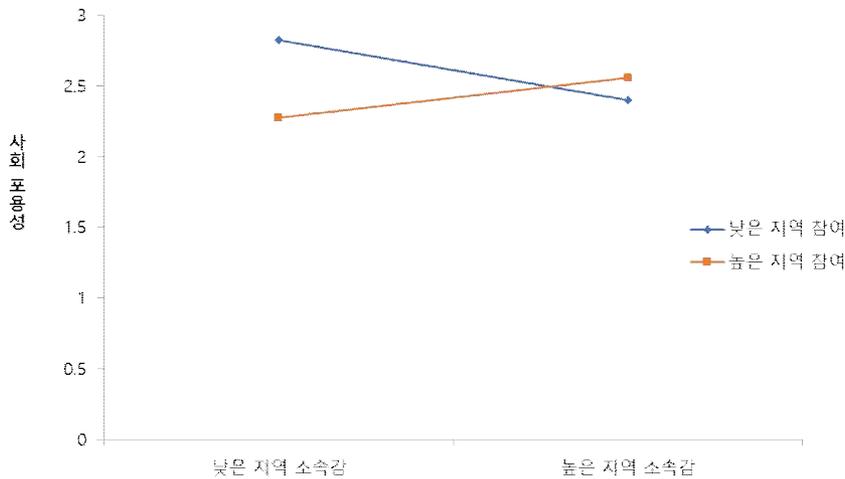
모든 모형에서 지역소속감과 사회 소수자 집단에 대한 포용성 인식 간의 부정적인 관계를 확인하였고, 첫 번째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는 개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지하고 있는 사회 정체성과 사회의 주류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이 동시에 작용하는 이중 정체성의 상황에서, 지역정체성이 공통 내집단 정체성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개인의 지역정체성이 지역사회 내의 사회 소수자 집단은 배제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사회참여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회 정체성이 사회 소수자 집단을 포용하는 공통 내집단 정체성으로 발현시키는 방안으로 작동하는가? 먼저 결속형 참여 중 동창회·향우회 참여에 대한 모형 I에서는, 참여는 사회 포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호작용 변수 포함 시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호작용 변수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서 동창회나 향우회 등과 같이 내부 결속형 참여의 경우 지역소속감과 사회 소수 집단의 포용성 간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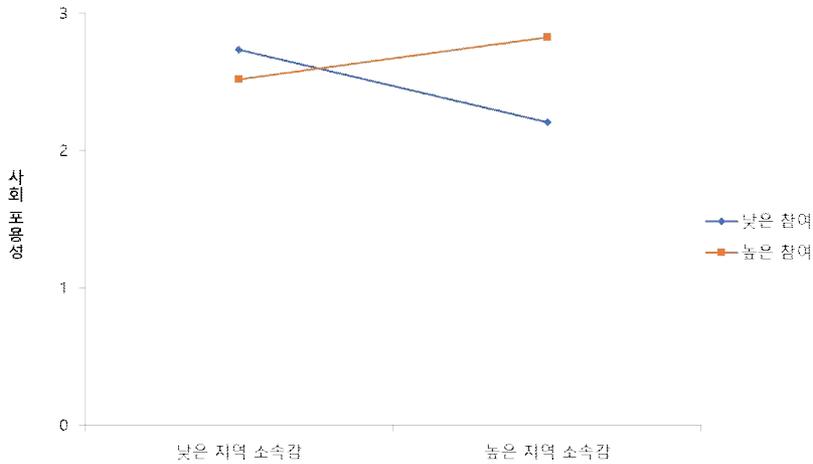
한편 결속형 참여 중 지역사회 공공모임 참여에 대한 모형 II에서는, 참여는 사회 포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상호작용 변수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가설 2-1은 기각되었으며,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결속형 참여 중 지역사회 공공모임 등의 참여는 지역사회 소속감이 갖는 사회적 포용성의 부정적인 관계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출신 지역 및 학연 등 관계에 기반한 참여보다 거주지역 기반의 참여가 사회 소수자 집단에 대한 포용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가설 3-1은 기각되었다.

그 이유는 지역사회 참여의 긍정적인 조절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사회 기반의 참여 활동은 지역소속감이 사회 소수자 집단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 같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즉 공통 내집단 정체성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영향을 주어 지역소속감이 갖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교량형 참여에 대한 모형 III에서는 사회 포용성에 대한 참여의 영향은 상호작용 변수가 포함되기 이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호작용을 포함한 모형에서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호작용 변수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소속감이 갖는 사회 소수 집단 포용성에 부정적인 요인이 교량형 참여 활동을 통해서 완화되는 것으로서 이질적인 집단과 함께하는 사회참여 활동이 갖는 긍정적인 요인 중 하나로 지역소속감이 외집단인 사회 소수자 집단을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서 가설 2-2는 기각되었으나 가설 3-2는 채택하였다. 통제 변수 결과를 포함한 자세한 회귀분석 모형의 결과는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모형2: 결속형 참여(지역사회 공공모임)의 조절 효과



〈그림 3〉 모형3: 교량형 참여의 조절 효과

〈그림 2〉와 〈그림 3〉을 통해서 지역사회 모임의 결속형 참여와 교량형 참여가 갖는 조절 효과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분석하였다. 특히, 두 유형의 참여가 사회 소수자 집단 포용성에 대한 지역소속감의 부정적 영향을 유의하게 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모형에서 참여 유형 변수는 이 항 변수로서 참여의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양 유형에서 참여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지역소속감이 높을수록 사회 포용성 수준이 올라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교량형 참여의 경우, 지역소속감이 높은 집단의 사회 포용성 수준을 보다 강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예측했던 바와 같이, 이질적인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교량형 참여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지역소속감이 공통 내집단 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작용하여, 사회 소수자 집단에 대한 높은 포용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만 지역사회 참여의 경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유의하게 완화하고 있었지만, 지역소속감이 낮은 집단의 사회 포용성 수준을 보다 강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소속감이 높은 집단의 경우, 참여에 따른 사회 소수자 집단에 대한 포용성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추후 지역사회 참여의 범위와 세부 유형을 구체화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표 4〉 모형별 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포용 (외국인,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조절 변수: 결속형 참여 (동창회·향우회)			조절 변수: 결속형 참여 (지역사회 참여)			조절 변수: 교량형 참여		
독립 변수	시도소속감	-0.007*** (-0.655)	-0.006 (-0.539)	0.000 (0.017)	-0.044* (-3.564)	-0.008 (-0.688)	-0.036** (-2.693)	-0.035* (2.138)	-0.033* (-1.980)	-0.056** (-3.132)
조절 변수	사회참여		0.055*** (4.928)	0.076 (0.093)		0.073*** (6.485)	-0.097* (-2.161)		0.102** (6.239)	-0.100 (-1.535)

상호 작용항	시도소속감* 사회참여			-0.023 (-0.496)			0.178*** (3.927)			0.210** (3.200)
통제 변수	성별 (남자=ref.)	-0.040*** (-3.606)	-0.035** (-3.152)	-0.035** (-3.156)	-0.040*** (-3.606)	-0.042*** (-3.783)	-0.040*** (-3.664)	-0.038* (-2.330)	-0.034* (-2.112)	-0.032* (-1.974)
	연령	-0.044*** (-3.564)	-0.046*** (-3.723)	-0.046*** (-3.726)	-0.044*** (-3.564)	-0.060*** (-4.776)	-0.060*** (-4.707)	-0.082*** (-4.412)	-0.081*** (-4.400)	-0.082*** (-4.460)
	이념적 성향	0.060*** (5.048)	0.057*** (4.868)	0.057*** (4.861)	0.060*** (5.048)	0.060*** (5.094)	0.059*** (4.982)	0.036* (2.035)	0.031 (1.789)	0.031 (1.753)
	현재 경제상황안정도	-0.016 (-1.402)	-0.019 (-1.660)	-0.018 (-1.643)	-0.016 (-1.402)	-0.019 (-1.721)	-0.018 (-1.649)	-0.031 (-1.860)	-0.041* (-2.496)	-0.043* (-2.593)
	현 거주지역 거주기간	-0.006 (-0.471)	-0.001 (-0.121)	-0.001 (-0.113)	-0.006 (-0.471)	-0.004 (-0.381)	-0.003 (-0.285)	0.039* (2.269)	0.045** (2.614)	0.047** (2.700)
	거주지역 (동/읍면부)	-0.021 (-1.924)	-0.018 (-1.657)	-0.018 (-1.666)	-0.021 (-1.924)	-0.029** (-2.597)	-0.029** (-2.629)	-0.004 (-0.219)	-0.001 (-0.065)	0.002 (0.136)
(상수)	2.431*** (38.712)	2.382*** (37.499)	2.363*** (31.803)	2.431*** (38.712)	2.437*** (38.894)	2.514*** (38.306)	2.519*** (25.922)	2.496*** (25.790)	2.570*** (25.854)	
F	12.625***	14.113***	12.571***	12.625***	16.359***	16.281***	7.179***	11.211***	11.128***	
Probability>F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R^2	0.011	0.014	0.014	0.011	0.016	0.018	0.013	0.024	0.026	
adj.R^2	0.010	0.013	0.013	0.010	0.015	0.016	0.011	0.021	0.024	

\*p<.05, \*\*p<.01, \*\*\*p<.001

## V. 결론

본 연구는 지역소속감과 사회 소수자 집단에 대한 포용성 인식 수준의 부정적인 관계를 확인하고, 그 부정적인 관계를 완화하여 사회 포용성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사회참여의 유형별 효과를 살펴 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지역소속감과 사회 포용성의 부정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서 현재 거주 지역 기반으로 형성된 개인의 지역정체성이 사회 소수자 집단을 같은 지역사회 구성원, 즉 내집단으로 포용하는 공통 내집단 정체성으로 발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교량형 참여 및 지역사회 참여가 사회 포용성 인식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교량형 참여의 경우, 이질적인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포용성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의 논의와도 일치한다. 다만 결속형 참여 중 지역사회 참여의 경우, 선행연구의 논의와는 달리 교량형 참여와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량형 참여 및 지역사회 참여의 긍정적인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지역소속감과 사회 포용성의 부정적인 관계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정체성이 중첩되는 정도가 높아지면서 타자에 대한 포용도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

구의 논의(González and Brown, 2003)와 일치한다. 특히 교량형 참여의 경우, 지역정체성이 강한 집단에서의 조절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 지역정체성이 사회 소수자 집단을 포함하는 공통 내집단 정체성으로 발현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써 사회참여 중 교량형 참여가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결속형 참여의 경우, 지역사회 참여는 사회 포용성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으나, 이는 선행연구의 논의와 상반된 결과이며, 동창회·향우회의 경우, 분석 결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즉, 출신 지역 및 학연 등 관계에 기반한 사회참여보다는 거주지역 기반의 참여가 사회 포용성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위의 분석 결과에서 본 연구의 한계점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향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거주지역의 범위를 세분화하지 않고 시·도에 대한 소속감 및 출신·거주지역 등 개인이 인식하는 지역 범위에 기반한 설문자료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지역의 자치 역량과 문화에 따라 참여 양상·제도 등도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하혜수, 2017) 지역의 범위와 정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참여 활동에서의 개인이 인식하는 지역의 범위 및 세분화된 활동 지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참여의 영향력을 결속형 및 교량형 등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지만, 사회참여의 내용에 따라 그 구분을 구체화할 수 있다. 사회참여 변수의 경우, 정치 참여, 자원 봉사, 문화 활동, 직장 등 의무적 참여 활동 등 그 내용에 따라 구체화할 수 있으며, 참여의 빈도 또는 강도, 동기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측정이 가능한 바(Guillen et al., 2011), 추후 연구에서는 측정 도구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첫째, 지역소속감과 사회 포용성 간의 부정적인 관계를 확인하여, 현재 국내 사회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소수자 집단이 포용되지 못하는 실태에 대한 원인을 탐색하였으며, 나아가 이러한 실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사회참여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사회 포용성의 영향요인으로서 사회참여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회 정체성이 전체적인 사회 포용성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현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사회참여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셋째, 기존 선행연구의 분석에서는 사회참여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참여의 수준이 증가할수록 포용성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제시하거나(Lee et al., 2024), 개별적인 참여 활동의 영향력을 분석하여(김진·강혜진, 2019), 참여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끌어내기에 어려웠다. 본 연구의 경우, 사회 자본의 유형 논의에 따라 사회참여의 논의를 구체화하여, 지역정체성이 이질적인 지역사회의 구성원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발현되어 사회의 잠재적인 갈등 수준을 높이지 않는 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논의를 뒷받침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외국인 인력 도입 등의 정책에 따라 국내 사회 구성원의 이질성이 높아

지는 한편, 지역사회 활성화 및 지역 주민 참여 기반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방향성이 동시다발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현실점에서, 정책의 초점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서윤·전희정. (2022). 사회적 자본이 안전인식을 매개로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6(2), 395-427.
- 권연화·최열. (2021). 개인의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갈등 인식 및 포용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토연구」, 95-112.
- 김기동·이재묵. (2022). 한국 유권자의 지역정체성과 지역주의 태도. 「한국정치학회보」, 56(1), 123-160, 10.18854/kpsr.2022.56.1.005
- 김윤태. (2019). 제5장 새로운 국가 모델의 탐색: 혁신적 포용국가: 은재호 외 (편). 한국의 새로운 국가모델 탐색: 포용국가 이론과 쟁점, 215-22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재경. (2015). 지역사회 공동체의 이해와 현황분석. 「사회복지경영연구」, 2(2), 281-294.
- 김진·강혜진. (2019). 사회 자본과 사회적 관용-단체 참여와 유형별 소수자에 대한 관용의 관계. 「한국정책학회보」, 28(4), 111-144.
- 김혜연. (2011). 사회적 자본이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 민간자원 연계사업 참여 주민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3(3), 1-29.
- 박능후·최민정. (2014). 중고령자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성과 역동성 분석. 「사회과학 연구」, 25(2): 325-354.
- 박상희. (2021).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규범적·정서적 포섭과 배제: 소속감 위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55(3), 67-112.
- 안혁근·김준모·주운현·맹보학·권용수·이영범·양승범·김용운·소진광·유영철·김태룡. (2010). 국격제고를 위한 사회적 소수자정책 조정체계 연구. 「기본연구과제」, 2010(0), 1-489.
- 양덕순·강영순. (2008). 지역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 71-89.
- 원숙연. (2017). 이주외국인과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용'의 구조와 정책적 함의: 탐색적 비교 연구. 「한국행정학보」, 51(3), 225-256.
- 유란희·이태형 (2020). 국가와 지역공동체 의식은 사회적 포용성을 확대시키는가?: 정부 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4(2): 309~338
- 윤인진. (2016). 다문화 소수자에 대한 국민인식의 지형과 변화. 「디아스포라연구」, 10(1), 125-154.
- 윤인진·송영호. (2007). "한국인의 소수자 및 다문화 관련 태도의 비교 분석." 한국사회학회 사회

- 학 대회 논문집, pp. 857-868.
- 이인원·박현욱. (2020). 사회적 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30(2), 1-29.
- 이재철. (2017). “사회자본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및 인식 분석”. 「정치정보연구」, 20(2): 275-304
- 이현우·이지호·한영빈. (2011). 사회자본(Social Capital) 특성이 지역주의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치학회보」, 45(2), 149-171.
- 정정희. (2024). 사회적 약자의 사회통합 및 인권증진을 위한 연구-다문화가정 인권을 중심으로. 「법이론실무연구」, 12(1), 387-408.
- 정현일. (2023). 한국사회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유형. 「사회사상과 문화」, 26(3), 289-332.
- 최석현·왕혜숙. (2019). 지역사회 참여의 미시적 기반에 관한 연구. 「동서연구」, 31(4), 101-133.
- 최영출. (2019). 지역거주 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의 조건결합 - 의사결정나무분석 활용 -. 「한국지방행정학보」, 16(1), 253-276.
- 하혜수. (2017). 지방소멸시대의 지방자치 재검토. 「한국지방행정학보」, 14(2), 1-24.
- 황정미. (2016). 사회적 위협 인식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 「아태연구」, 23(2), 311-346.
- 허거훈·정혜진. (2020) 사회적 자본이 시민들의 이민자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보」 29(4), 145~171.
- Antonsich, M. (2010). Searching for belonging—An analytical framework. *Geography Compass*, 4(6), 644-659.
- Brewer, M. B. (1991). The Social Self: On Being the Same and Different at the Same Tim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7(5): 475-482.
- Burt, R. S. (2000). The network structure of social capital.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22: 345-423
- Cheong, P. H., Edwards, R., Goulbourne, H., & Solomos, J. (2007). Immigration, social cohesion and social capital: A critical review. *Critical social policy*, 27(1), 24-49.
- Côté, R. R., & Erickson, B. H. (2009). Untangling the roots of tolerance: How forms of social capital shape attitudes toward ethnic minorities and immigrant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2(12), 1664-1689.
- Dovidio, J. F., Gaertner, S. L., & Saguy, T. (2007). Another view of “we”: Majority and minority group perspectives on a common ingroup identity.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8, 296-330.
- Gaertner., S. L. & Dovidio, J. F. (2005). Understanding and addressing contemporary racism:

- From aversive racism to the common ingroup identity model, *Journal of Social Issues*, 61(3), 615-639.
- Gidley, J., Hampson, G., Wheeler, L., & Bereded-Samuel, E. (2010). Social inclusion: Context, theory and practice. *The Australasian Journal of University-Community Engagement*, 5(1), 6-36.
- Graffin, F., Morrisseys, M. (2011). Community Cohesion and Social inclusion: Unraveling a Complex Relationship. *Urban Studies*, 48(6): 1089-1118.
- Hogg, M. A. (2016). Social Identity Theory. In S. McKeown, R. Haji & N. Ferguson (Eds.), *Understanding Peace and Conflict Through Social Identity Theory: Contemporary Global Perspectives*, 3-17. Switzerland, Springer Internationa.
- Kitchen, P., Williams, A., & Chowhan, J. (2012). Sense of belonging and mental health in Hamilton, Ontario: An intra-urban analysi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8(2), 277-297.
- Lee, D., Kim, H. J., & Kang, M. M. (2024). Examining the Role of Social Capital and Socioeconomic Status on Anti-Foreigner Sentiment in South Korea. *Korea Observer*, 55(1).
- Leuenberger, D. Z., & Wakin, M. (2007). Sustainable development in public administration planning: An exploration of social justice, equity, and citizen inclusion. *Administrative Theory & Praxis*, 29(3), 394-411.
- Paxton, P. (2002).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An interdependent relationship.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54-277.
- Portes, A. (1998). Social capital: Origins and applic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1-24
- Putnam, R. D.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65-78.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 Schuster. New York. NY.
- Rawal, N. (2008). Social inclusion and exclusion: A review. *Dhaulagiri Journal of Sociology and Anthropology*, 2, 161-180.
- Stets, J. E., & Serper, R. T. (2013). Identity Theory. In J. DeLamater & A. Ward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31-60. New York: Springer.
- Tajfel, H., & Turner, J. 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W. G. Austin & S. Worchel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2nd Edition)*, 7-24. Chicago: Nelson-Hall.

- Tselios, V., Noback, I., van Dijk, J., & McCann, P. (2015). Integration of immigrants, bridging social capital, ethnicity, and locality. *Journal of Regional Science*, 55(3), 416-441.
- Van Wart, M., McIntyre, M., & Hall, J. L. (2023). Social inclusion, social exclusion, and the role of leaders in avoiding-or promoting-societal collaps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83(3), 691-701.
- Woolcock, M. (2001). The place of social capital in understanding social and economic outcomes. *Canadian Journal of Policy Research*, 2(1): 11-17.

접수일(2024년 07월 24일)

수정일(2024년 08월 12일)

게재확정일(2024년 08월 19일)

<국문초록>

## 개인의 지역소속감이 사회 소수자 포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 참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다양해지면서 잠재적 갈등수준이 높아지는 바,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정체성이 다양한 이질적인 집단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발현되는지 확인하고, 사회 포용성 수준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 따라서 사회 정체성 이론 및 사회 자본의 유형별 논의를 활용하여, 지역정체성이 사회 포용성이 미치는 영향과, 나아가 사회 포용성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사회참여의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역정체성(소속감)과 사회 포용성은 부정적 관계를 보였다. (2) 결속형 참여 중 동창회·향우회 참여는 (1)의 관계에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미친 한편, 지역사회 참여는 긍정적으로 조절하였다. (3) 교량형 참여는 사회 포용성 및 (1)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사회 소수자 집단에 대한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지역정체성 및 사회 참여의 유형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사회 포용성, 사회 소수자, 지역소속감, 사회 정체성, 사회자본

---

**박경화**(朴竟華: 주저자):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행정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 포용성, 조직간협업, 협력적 거버넌스, 비영리조직 등이다(khpak@ewha.ac.kr).

**이승혁**(李昇奭: 교신저자): 미국 Indiana University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 연구 분야는 협업과 포용에 기반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운영이며, 특히 재난과 노숙자, 그리고 다양성 관련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연구 성과는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등에 게재하였다(lee211@ewha.ac.kr).